

통일선보

무소속대변지

제47호 [투계 제2725호]

주체 111
(2022)년 11월
19일
토요일
음력 10월 26일

절세위인의 향도 따라 삼천리

강도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절세위인을 모시여 행성에 우뚝 선 위대한 나라

오늘 공화국은 인류사상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인민도 헤쳐 보지 못한 사상초유의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민족사상 최상의 존엄과 영예를 떨치며 이 행성위에 자기의 용자를 뚜렷이 나타내고있다.

남들같은 열변은 더 주지 않았을 시련이 다른 민족이라면 맞받아갈 용기조차 낼 수 없을 나라이나.

하지만 공화국은 단 한순간의 주춤 모르고 휘황한 미래를 향해 질풍노도처럼 내달리고있다.

날로 더욱 승승장구하는 공화국의 힘, 불요불굴하는 인민의 정신, 이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통솔력을 높이 모시여 날아가는 조선통유의 힘이고 조선인민통유의 정신이다.

자주권과 존엄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여태의 재부를 자랑하고 풍부한 자원을 자부하며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와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자주권이 없고 존엄이 상실되면 비참한 운명을 면할 수 없다.

조선아, 너는 왜 남과 같이 크지를 못하였나, 왜 남과 같이 강하지 못하였나라는 눈물젖은 토로가 이 땅을 흔들던것이 바로 한세기이전의 일이다.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이 무참히 짓밟히다 못해 자기의 성과 이름마저 빼앗겼던 인민, 그래서 약소국, 식민지민족으로 불리우던 이 나라 인민이었다.

그 비참했던 어제의 조선이 오늘은 자주의 강국으로 행성에 빛을 뿌리고있다.

지금도 누구나의 귀전에 쟁쟁하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 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역사적인 연설에서 예나 지금이나 나라의 지정학적위치는 변함이 없지만 려장들의 각축전마당으로 무참히 짓밟혔던 어제의 약소국이 오늘 당당한 정치군사강국으로 전변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자주적 인민으로 존엄떨치고있다고 긍지높이 선언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우렁우렁하신 그 음성이다.

돌아보면 일찌기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민족자주정신, 조선민족제일의 정신에 기초하여 오래동안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던 기성의 편견을 깨고 우리 나라의 지정학적특징을 새롭게 밝혀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나라를 둘러싼 정세가 복잡해진 것은 우리 나라가 큰 나라들에 둘러싸여있거나 대국을 잠에 끼여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나라가 대국들을 움직일수 있는 전략적요충지를 타고있었기때문이라고 나라의 지정학적특징을 명철히 밝혀주시었다.

이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을 중심에 놓고 나라와 민족의 이익의 전에서 보고 판단하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투철한 자주사상의 효율이었다.

공화국의 전 행로가 그리하였지만 지난 10년간은 민족자주, 민족자존의 정신이 남김없이 파시되어 나라와 민족의 존엄이 우주만리에 뽐낸 격동적인 나날들이었다.

공화국을 무적의 강국으로 일떠세워 나라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고 민족의 위대한 찬란한미래를 확고히 담보하실 불같은 신념으로 국가핵무력완성의 민족사적대업을 이룩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인민의 존엄과 명예를 떠매고 강국건설의 려정을 앞장서 헤쳐 오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가슴속에는 이런 불같은 의지가 소중히 자리 잡고있었다.

어떤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와 목숨을 바쳐서라도,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강해야 하고 우선 강해지고야 한다. 든든한 반석위에 세운 집에 영원한 만복이 깃들듯이 나라도 강국부러 되어야

민족의 존엄이 무궁번영의 부국도 될수 있다.

자주의 강국인 우리에게는 존엄이 생명이며 존엄을 잃고서는 살수 없다는 억척불변의 신조를 지니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낮이나 밤이나 쉬임없이 국력강화의 길을 걷고계신 경애하는 원수님입니다.

원단을 내리기도 힘겹지만 실천하기는 몇천몇만배 강고한 핵 무력완성의 그 길을 단호히 앞장서 헤쳐시며 눈물겨운 헌신의 발걸음으로 공화국의 힘을 더해주시고 밝은 미래를 열어가신 경애하는 원수님.

위협천만한 화선에도 서슴없이 나가서 국방과학자들과 생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희생적인 헌신의 걸음걸음에서 《화제록탄》, 《절대병기》 일련의 대륙을 짊어보라, 도대체 오늘까지도, 지금 이 시각에도 전란과 동란, 대결과 위기, 참사와 불행으로 요동치고 신음하지 않는 곳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세상은 존엄과 굴종, 삶과 죽음을 놓고 전쟁을 하고있지만 공화국인민은 평화의 맑고 푸른 하늘에서 존엄높고 값높은 삶을 누리고있다.

존엄은 언제나 힘을 요구한다. 강은 피로써 얻는것이요 백년대

《울사5조약》의 강도적날조로 우리 민족은 자주권과 존엄을 깎아 빼앗겼던 근 반세기동안 침략자의 발밑에 신음해야만 하였다.

그 11월부터 110여년만에 어제날 화승총을 부여안고 망국의 피눈물을 쏟아야만 했던 약소국이 최강의 자위적역력을 가진 강대한 나라로 자기의 위상을 한껏 떨치었다.

11월은 우리 민족사에 빛나는 한페지를 아로새긴 긍지높고 영광스러운 강국의 달로 새롭게 아로새겨졌다.

세상의 지도를 펼치고 임의의 어느 대륙을 짊어보라. 도대체 오늘까지도, 지금 이 시각에도 전란과 동란, 대결과 위기, 참사와 불행으로 요동치고 신음하지 않는 곳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세상은 존엄과 굴종, 삶과 죽음을 놓고 전쟁을 하고있지만 공화국인민은 평화의 맑고 푸른 하늘에서 존엄높고 값높은 삶을 누리고있다.

존엄은 언제나 힘을 요구한다. 강은 피로써 얻는것이요 백년대

계를 낳지만 강이 없는 부는 하루아침에 잃게 된다.

바로 그래서 자기를 지킬 힘이 있어야 부국이 있고 존엄이 있는 것이다.

조국과 인민의 위대한 존엄과 명예를 위하여 용감히 쓰라!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의 시험발사에 관한 문건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남기신 글발이다.

그 거대한 역사적사건을 얼마나 고대하고 얼마나 천신만고를 다해 마련했는지라면, 또한 거기에 얼마나 크나큰 의미를 부여하시었는지 경애하는 원수님 이런 피가 뛰는 친필명령을 하달하시었었다.

백두산악과 같이 억년 드물지 않는 자주적신념과 배짱으로 어떤 세력이든 감히 공화국의 근근이와 침탈하려한다면, 공화국의 군사적대결을 기도한다면 그런 세력은 소멸될것이라고 하신 지난 4월의 열병식장에서의 위대한 선언이 이어 지난 9월 공화국핵무력정책에 관한 법령을 채택하도록 하시여 나라의 자주적존엄과 백절불굴의 기상을 만천하에 떨치

신 경애하는 원수님입니다.

민족자존은 굽어죽고 열어죽을 지언정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한다. 민족자존은 목숨보다 귀중하며 그것을 잃게 되면 나중에는 국가도 인민도 모든것을 다 잃게 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이 지금도 이 나라 인민의 심장을 광광 울려준다.

자존과 의존, 글자로 따지면 단 한글자 차이이지만 그 총괄점은 주인과 노예, 독립과 예속, 강국과 망국이라는 심각한고도 첨예한 양극단으로 갈라지게 된다.

그래서 남을 바라보는것을 절대로 허용치 않았고 자랑력제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었다.

극악한 난관속에서 모든 문제를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면서도 오직 세계적인것, 세계를 압도하는 조선의것을 지향하시고 완강히 실천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최악의 시련속에서도 거대한 성과를 이룩하여 공화국을 온 세계가 우러러보게 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그이의 확고부동한 신념이다.

2월 7일 공화국의 우주과학자, 기술자들은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성공적인 발사라는 역사적사건을 안아왔다.

단 몇차례의 시험위성발사에 이어 지구관측위성으로부터 극궤도위성으로의 급격한 발전, 그것은 위대한 강국으로 뛰어오르는 조선식비약의 궤도인 동시에 공화국의 자주정신과 창조적합의 일대파시였다.

모두가 기쁨속에 울고있던 성공의 그 시각 격정속에 눈물겹게 안겨온것은 나라와 인민을 세계의 상상봉에 우뚝 올려세우기 위하여 바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의 로고였고 강인담대한 자주적신념과 배짱이었다.

가슴터질듯 부푸는 긍지와 신심을 안고 격정으로 불덩이같은 심장에 조아박은 자강력의 정신을 총분출시키며 경애하는 그이의 령도를 따라 세계를 놀래우는 기적들을 다발적으로, 려계로 이루어져온 공화국의 지난 10년이었다.

적대세력들의 책동은 날을 따라 더욱 악랄해졌지만 시련과 난관이 겹쌓일수록 남들이 보란듯이 자기의 힘, 자기의 기술, 자기의 손으로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한 공화국이였다.

그렇게 비롯된 공화국의 자주기상이다.

나라와 민족의 위대성은 령도자의 위대성에 있다.

결코 령도의 광대성이나 려사의 유구성, 인구수가 나라와 민족의 위대성을 규정하는것이 아니라 어떤 령도자를 모시고있는가 하는것이 모든것을 결정한다.

이는 공화국의 자랑찬 려사가 실증해준 진리이다.

하기에 공화국인민 누구나의 가슴마다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르는 길에 참다운 삶도 행복도 영광도 있으며 후손만대의 번영도 있었다는 신념, 바로 그 길 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이 빛나고 백전백승하는 걸이라

는 철리, 공화국은 온 세계가 우러르는 천하제일강국으로 위용떨치러가는 확신이 역척같이 자리 잡고있다.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시여 이 조선은 영원토록 무궁번영할것이다.

본사기자 손지성



117년전 망국조약이 퇴친 비탄의 통곡소리

《...아, 분하도다. 이제는 노예가 된 우리 2천만동포여, 살았다고 하겠는가, 죽었다고 하겠는가.

...통분하고 통분하다. 동포여, 동포여.》

이것은 1905년 11월 20일부 《황성신문》에 실린 장지현의 본설 《시일야방성대곡》(이날에 소리내어 크게 통곡하노라)의 한 대목이다.

1905년 11월 17일 《울사5조약》을 날조한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노예의 처지로 굴러떨어지게 된 조선민족의 비통한 심정과 울분이 자자구구 승배인 글이다.

반만년의 유구한 려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조선민족이 섬나라 오랑캐무리들에 의해

나라를 빼앗기고 상가집 개간도 못한 노예의 신세가 되었으니 그 원통함이 어찌 강산에 사무치지 않을수 있으랴.

삼천년 강산이 울음마타로 변하였고 눈물은 강물을 이루었다.

거리와 골목, 마을과 집 어디서나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 망국의 한을 터뜨리는 백성들의 눈물겨운 광경이 펼쳐졌었다.

민족의 려사 반만년에 이런 참변이 빚어질줄 과연 누가 알았으랴.

애국적인 지식자들은 자결로써 망국의 한을 씻으려 하였고 나라를 빼앗긴 수많은 사람들이 살길을 찾아 멀고먼 이역방으로 흘러갔다.

20세기초 조선의 비참한 모습은 힘이 약한탓에 겪어야 했던 약소민족의 가슴아픈 치욕이고 비극이었다.

일제는 황궁을 무력으로 겁걸이 에워싸고 황제와 조선봉건정부의 대신들을 종칼로 위협하며 망국조약을 강박했다.

반대하는 대신들은 밖으로 내동댕이쳐졌다. 고종황제가 《조약》날조를 끝까지 반대하며 《백성들의 의향》을 물어야 한다고 하자 《헌법정치》가 아닌 《군주전제국》에서 《백성들의 의향은 기괴한 만민일》이라고 하면서 무조건적인 순종만을 강요했다.

이렇게 누구도 원치 않은 망국이였다. 그러나 그것은 국력이 약한탓에 어쩔수없이 강요당해야만 했던 비극적현실이었다.

돌아보면 남들이 군함과 기차를 타고 다닐 때 조선봉건정부의 판로배들은 갓소고 하늘소라고 음용영어로 세월을 헛되어 보내었다. 국력을 키울 대신 큰 나라들만 쳐다보면서 패권을 일삼았다. 결과 국력은 점점 쇠잔해지고 이 땅은 려장들의 각축전장으로 되어 나중에는 섬나라 족발이들에게 나라를 통째로 빼앗기지 않으면 안되였다.

여기에 이런 자료가 있다.

1905년에 이르러 일본은 6 000t급이상의 최신군함만 12척, 현대적무장을 갖춘 20만명의 특군상비무력을 가지고있었다. 당시 서울에 기어든 일본군의 병력은 보병 3만명, 기병 800명, 포병이 5 000명이나 되였다.

이에 비해 조선군대의 병력수는 서울에 2개 연대 5 000명과 지방에 8개 대대 약 2 000명을 합쳐 7 000명 정도에 불과했다. 기본적인 무장장비도 창과 활, 화승대였다.

20만명 대 7 000명, 대포 대 화승총.

이것이 당시 조선과 일본의 군력실태였다.

이런 실력으로 어떻게 나라를 지켜낼수 있었겠는가. 20세기초 망국조선에서 터져나온 눈물과 비탄의 통곡소리는 힘이 없어 하루아침에 나라를 빼앗기고 망국노의 신세가 된 겨레의 눈물이였고 목숨이었다.

하기에 울사년의 피의 교훈은 오늘날도 우리 겨레의 가슴가슴을 이렇게 쿵쿵 울려주고있다.

본사기자 박철남

강국의 공민들이 웨치는 환호성



지난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을 맞이하며 진행된 심야열병식이 준 총중은 오늘날도 광복의 메아리로 울려 퍼지고있다.

열병식연단에 서시는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러 강국의 인민들이 터진 우렁찬 환호성.

지심을 뒤흔들며 나아가던 정예무력의 종대와 종대들, 인민군대전투력의 상징적이고 무취죽임 주력방크중대와 세계최강의 병종을 틀어쥔 자부심과 긍지를 연해연방 터뜨리었다.

에나 지금이나 이 나라의 지정학적위치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어제의 조선과 오늘의 조선은 땅과 하늘의 차이이다.

117년전 조선의 국력은 화승대포로 이음할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 주체조선의 힘은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이 그대로 말해주고있다.

세계가 총경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 거대한 힘을 어느분이나 마땅히주시는가.

이 위대한 강국의 존엄과 긍지와 영광을 어느분이나 안겨주시는가.

본사기자 전명진



중앙계급교양관에 재현되어있는 《울사5조약》날조현장